통계 프리즘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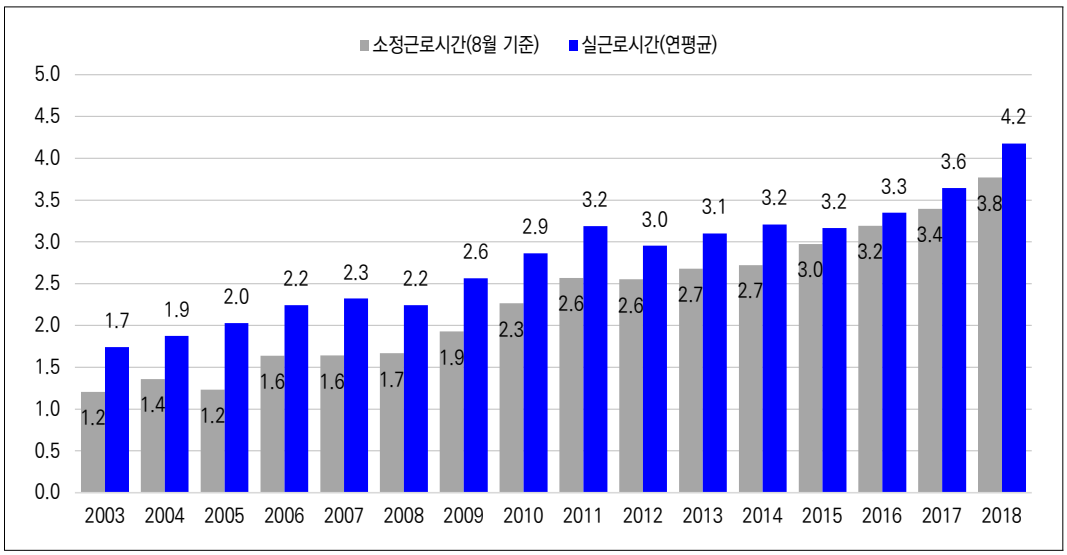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기준)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 평소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진 초단시간 근로자[1]는 2018년 756천 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8%를 차지함.

– 전년동월대비 0.4%p 증가하여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월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하 실근로시간) 기준 15시간 미만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연평균 839천 명으로 전체의 4.2%로 전년대비 0.6%p 증가함.

〔그림 1〕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주 : 1)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에 고용되어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말함.
2) 실근로시간은 주된 일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기준 지난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다른 일(부업, 투잡 등)의 취업시간은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본고에서 초단시간 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의미함.

– 공휴일, 휴가 등으로 실근로시간 기준 초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소정근로시간 기준일 때보다 0.4%p 높게 나타남.

○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로 여성(73.3%) 임금근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1.2%)과 공공행정(18.8%), 교육서비스업(12.7%)에 종사하고 있음. 직종별로는 청소 및 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자(49.3%)로 종사하고 있음.

– 청년층(15~29세)은 2017년 기준 도소매업(20천 명 증가), 교육서비스업(11천 명 증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은 도소매업(4천 명 감소)과 숙박 및 음식점업(3천 명 감소)을 중심으로 2천 명 감소하였음.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종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여성, 단순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특성상 고령층의 안전을 고려하여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근로시간을 낮게 조절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9년 1월[2]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천 명 증가), 공공행정(12천 명 증가)에서 종사하는 고령층 초단시간(실근로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

〈표 1〉 15시간 미만(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특성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6 8월	2017 8월	2018 8월	증감			2016 8월	2017 8월	2018 8월	증감
성별	남성	185	193	202	(9)	연령별	15~29세	158	199	196	(-2)
	여성	445	486	554	(68)		30대	37	36	38	(2)
산업별	도소매업	61	74	65	(-9)		40대	51	55	42	(-13)
	숙박·음식점업	94	101	95	(-5)		50대	51	48	52	(4)
	사업지원·임대	28	13	13	(-0)		60세 이상	334	342	428	(86)
	공공행정	102	121	142	(21)	직종별	전문가	91	102	108	(7)
	교육서비스	76	93	96	(3)		서비스직	145	154	154	(0)
	보건·사회복지	167	180	236	(57)		판매종사자	47	75	66	(-8)
	예술스포츠·여가	16	26	27	(1)		단순노무직	294	293	373	(80)
	협회·개인서비스	34	31	30	(-0)	합 계		630	679	756	(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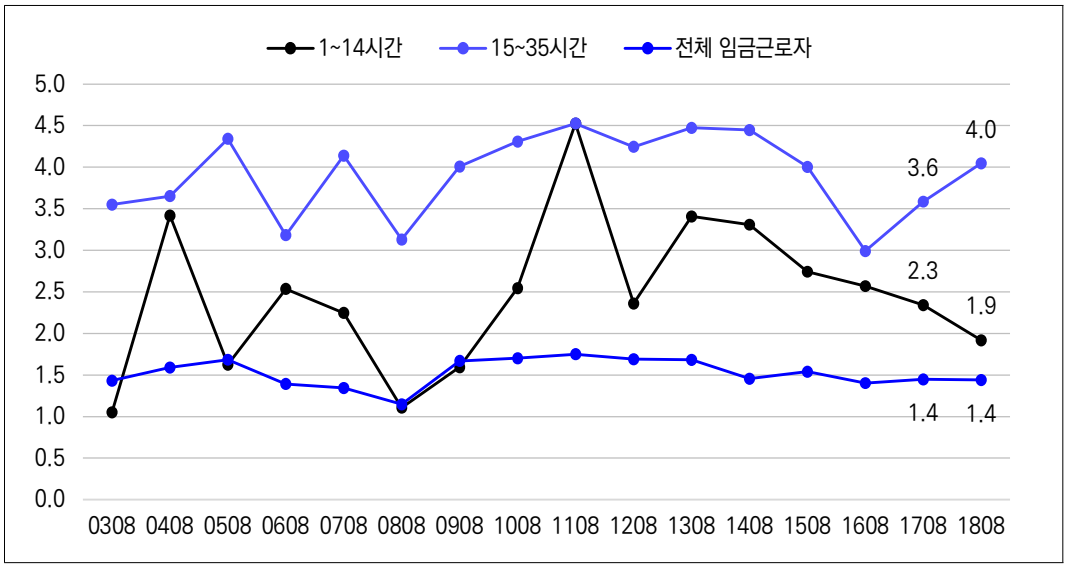
2) 전년도까지 2월에 실시되었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실시하였음.

○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업에 참여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로 부업에 참여한 근로자(15천 명, 전년동월대비 1천 명 감소)의 비중은 2.3%에서 1.9%로 감소하였음.

-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15~35시간) 근로자(82천 명 증가) 중 부업 근로자는 13천 명 증가하여 부업에 참여한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음.
- 52시간 장기간 근로자는 대폭 감소하였지만(전년동월대비 164천 명 감소), 부업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한 영향으로 전체 부업에 참여하는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그림 2〕 임금근로자 중 부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비중(소정근로시간 기준)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현재 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90.3%이며, 현재보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5.8%를 차지하고 있음.

-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의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중이 낮고, 현재의 근로시간에 만족하는 근로자 비중은 높게 나타남.
- 반면, 30세 이상 59세 이하 연령층은 현재의 근로시간에 만족하는 근로자 비중은 77.8%,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중은 22.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함. KLI

〈표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근무 및 전직 희망 추이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3 8월	2014 8월	2015 8월	2016 8월	2017 8월	2018 8월	증감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86.1	88.3	89.0	87.9	86.2	90.3	(4.1)
- 청년층(15~29세)	88.7	92.0	93.6	92.6	88.9	92.7	(3.8)
- 30~59세	75.8	77.5	76.3	69.4	69.3	77.8	(8.6)
- 60세 이상	91.0	91.0	91.7	93.4	91.6	93.1	(1.6)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	8.4	7.0	6.1	7.6	8.0	5.8	(-2.2)
- 청년층(15~29세)	5.4	3.5	1.9	4.3	3.9	3.7	(-0.3)
- 30~59세	18.9	13.6	13.1	20.2	19.8	13.8	(-6.0)
- 60세 이상	3.6	5.9	5.4	3.9	5.5	4.3	(-1.3)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	2.7	2.8	2.4	2.3	2.6	1.6	(-1.0)
- 청년층(15~29세)	3.6	1.2	2.6	1.4	2.5	1.0	(-1.5)
- 30~59세	2.6	6.8	4.0	5.3	5.0	3.0	(-2.0)
- 60세 이상	2.0	2.0	1.6	1.5	1.8	1.5	(-0.3)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2.9	1.9	2.5	2.2	3.1	2.2	(-0.9)
- 청년층(15~29세)	2.4	3.2	1.9	1.7	4.6	2.6	(-2.0)
- 30~59세	2.6	2.0	6.6	5.1	5.9	5.3	(-0.6)
- 60세 이상	3.4	1.1	1.2	1.2	1.1	1.1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용빈, 동향분석실 연구원)